

노년기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디자인 개발

-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

나 현 신* · 변 지 연** · 문 지 현*** · 조 윤 주****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Development of Vest Design with Korean Image for the Elderly

- Based on the concept of universal fashion design -

Hyunshin Na* · Jeeyeon Byun** · Jihyun Mun*** · Yunjoo Ch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9. 7. 9, 심사(수정)일: 2009. 7. 30, 게재확정일: 2009. 8. 3)

ABSTRACT

Nowadays the numbers of the aging population are rapidly increasing in Korea, which became the 'aged country' from the year 2000. These aged people are getting more important consumer group and the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the silver industry are getting bigger. Universal fashion design is based on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that pursues the 'design for all'.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hysical,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omen and apply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to universal fashion design for the elderly. Korean traditional vest, 'Baeja' was used as the design inference for the target of age 55 and older. This group is also called as 2Y2R(too young to retire), Tonk(too only no kids), Y-O(young-old) generation, or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such as accessibility, flexibility in use, fair in use, aesthetics, safely-oriented were applied in developing the vest. This universal fashion products enable the elderly to have physical independence and make them have the self respect and better life.

Key words: aged people (노년층), accessibility(접근성), flexibility in use(융통성), fair in use(공평성), aesthetics(심미성), safely-oriented(안전성)

I. 서론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소비의 주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노인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원성을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을 수용하는 21세기 디자인 개념으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환경 및 제품 개발에 적용되며 발전되었다. 이와 함께 노년층 의복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신체 결점과 제한을 보완하는 유니버설 패션 제품 개발의 중요성 또한 차츰 부각되었다.

그동안 노년층의 의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체형 특성 및 의복 원형 개발¹⁾, 의생활 실태²⁾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의 원리 분석과 국내외 업체의 실제 개발 사례 조사, 제품 개발 등³⁾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의생활과 관련된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및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의 개념 및 원리를 제조명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 전통 배자에 접목시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설계·개발하였다.

조끼류는 착탈이 용이하며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의 원활한 생리 기능 향상에 유용한 아이템이며, 여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노인들에게 친숙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본 연구의 목표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적 특성 및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노인들에게 친숙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패션 상품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전통 복식을 현대화하고, 폭넓게 착용될 수 있는 유니버설 패션디자인으로 보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 노년기의 특성과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1. 노년기의 특성과 의복

Birren & Cunningham (1989)은 노인에 대한 정의를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뿐이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를 겪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하였고⁴⁾ 국제 노인 학회에서는 노화를 ‘인간의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Joseph Koncelik은 노화의 특성을 시력의 변화, 청력의 변화, 근력, 유연성, 이동성의 변화로 구분하였다.⁵⁾

그러므로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됨을 알 수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으로 체형은 등과 허리가 굽고 하복부가 나와 허리가 굽어지며, 키와 팔다리 등이 줄어든다. 생리적으로는 신체 모든 기관의 기능과 저항력이 저하되며 손발의 관절이 차가워지고 피부도 약하고 민감해지며 시력과 청력도 저하된다. 운동 기능도 저하되어 몸통과 팔다리, 손가락 끝의 움직임도 둔하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고독감 등은 우울증을 유발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⁶⁾

이처럼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현상들과 더불어 의복행동과 관련해서는 기성복 착용시 사이즈나 맞춤세의 문제점, 착탈의 어려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노년기 의복 디자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로는 가장 먼저 체형적인 결점을 보완한 의복 설계가 요구된다. 맞음새에 있어서, 노화로 인해 진행된 팔다리의 길이 축소를 위해 팔, 다리의 밑단 길이를 짧게 수정하며, 측면 체형의 굴절화를 고려하여 어깨에 다트를 넣거나 앞길이보다 뒤길이의 차이를 크게 한다. 또한 허리가 굽어지므로 허리둘레를 여유 있게 처리하여 신체적인 결점을 커버한다.

둘째로는 기능적인 의복설계를 가미하여 체온조절에 용이한 아이템과 보온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생리적 기능 저하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소지품이나 보청기 등 물품 소지가 유용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기능적 포켓도 가미하며, 둔화된 손끝 감각을 보완하기 위한 여밈의 방법과 위치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마지막으로는 의복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생활에서 비롯된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소외감과 위축 심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 가능케 할 것이다.

2. 유니버설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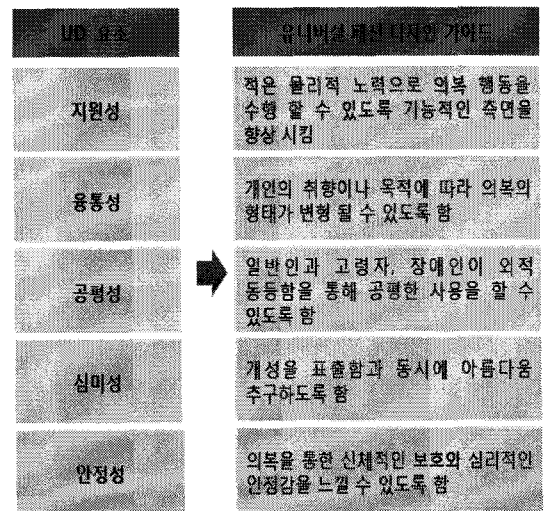
유니버설과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시킨 유니버설 패션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패션 환경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상품에 기능성을 추가하고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를 전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패션성과 기능성을 균형있게 가미한 제품을 의미한다.⁷⁾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의 발원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인 주립대학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는 1997년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7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시제품 개발의 단계까지는 불필요한 경제성과 접근성을 제외한 지원성, 융통성, 공평성, 심미성, 안전성을 유니버설 패션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의 가이드로 사용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각 요소를 패션 디자인의 측면

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성은 착용자의 신체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의 향상을 의미하며, 융통성은 가변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상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공평성은 일반인과 고령자, 장애인과의 외관적 동등함을 통한 공평한 사용을 추구함이다. 심미성은 의복 착용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정성은 의복을 통해 신체적인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을 의미한다.<그림 1>



<그림 1>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가이드

이상과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를 패션 디자인의 측면과 연관지어, 노년기 여성을 위한 유니버설 조끼 디자인 개발의 디자인 가이드로 활용하였다.

Ⅲ. 노년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디자인

1. 디자인 기획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현대 사회의 노년층 연령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어느 사회의 연령구조에서나 생활주기의 최종단계에 있는 연령집단이라 할 수 있다.⁸⁾ UN 세계 노인 의회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할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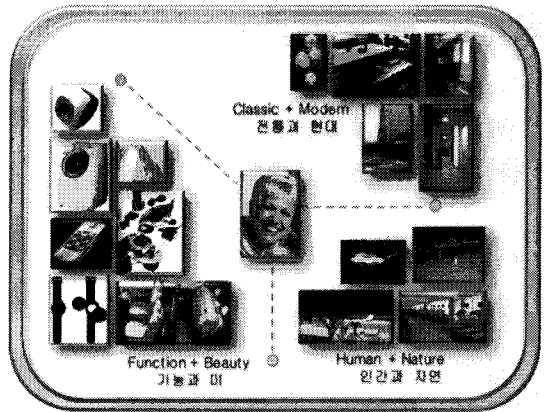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갑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⁹⁾ Brody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여 60-64세를 초기노인(young-old), 65-74세를 중고령 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분류하였다. Hurlock(1975)은 '보편적으로 60세가 중년과 노년을 구분 짓는다.'라고 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60-64세를 60대 전기, 65-69세를 60대 후기, 70-74세를 70대 전기, 75-79세를 70대 후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Neugarten (1974)은 노인집단을 55-65세의 연소노인(young-old), 65-75세의 중노인, 75세 이상의 고령노인(old-old)으로 분류하였다.¹⁰⁾ 이상의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깃으로 설정하였다.

오늘날의 노년기는 '나이에 맞게 노인답다'란 가치관을 가지던 시대와는 달리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스스로 노인으로 인식되어짐을 거부하며¹¹⁾ 은퇴 후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노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은퇴와 동시에 제 2의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생산적 고령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정년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은퇴시기를 결정하고 은퇴 후의 삶을 재창조하여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의미의 2Y2R 세대(too young to retire),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노부부가 함께 인생을 즐기는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Tonk(two only no kids)족,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 활동을 시작하는 Y-O(young-old)세대,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이란 뜻을 가진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족¹²⁾이 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뉴실버세대'는 지난 시절 쌓아놓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양질의 삶을 일컫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욕구로 친환경적인 소비성향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삶을 영위한다. 미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기능적인 편리

함을 추구하므로, 노인이라는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신체적 제약이 고려된 기능적이면서 미적으로 아름다운 합리적 제품 등을 요구한다. 또한 과거로의 향수에서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은, 의식주의 일상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조화되는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림 2>



<그림 2> 소비자 프로파일

이와 같은 소비자 그룹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하여 노년기의 둔화된 체온 조절 기능에 효과적인 조끼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이 때, 전통과 현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통 복식인 배자에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현대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간과 자연, 기능과 미, 전통과 현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55세 이상의 소비자 타깃을 위해 연령을 초월한 Ageless 컨셉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이미지의 유니버설 조끼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이는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이 조화된 가운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제품 설계

배자(背子)의 사전적 의미는 조끼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을 총칭하는 것¹³⁾이며 현재 한국 배자의 원류를 중국의 반비(半臂) 또는 양당(兩襠)에서 보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¹⁴⁾ 당(唐)대 처음 생겨나 송

(宋)대에는 남녀 모두 착용하였고 명(明)대에는 명부의 예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형식의 변화가 현저하였다.¹⁵⁾

반비는 짧은 소매가 달린 반수의(半袖衣) 형태로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9년 복식금제¹⁶⁾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있다. 양당은 소매가 없는 무수의(無袖衣) 형태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 벽화¹⁷⁾의 남녀 착용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고려, 조선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착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자란 특정 형태로 정의할 수 없고 착용자의 시대, 신분,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생활에 적합한 조끼 디자인 개발에 용이하도록 넓은 의미의 배자¹⁸⁾에 등

근깃 또는 사각형의 방령깃 에 앞 중심 쉼선이 나란히 맞닿는 대금형, 즉 소매가 없는 무수대금형(無袖對襟形)배자¹⁹⁾와 반소매 형태의 반수대금형(半袖衣形)배자²⁰⁾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디자인은 사각형의 방령깃이 달린 무수대금의²¹⁾를 가벼운 운동시 착용할 수 있는 스포티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깃 모양을 응용한 칼라 형태에 동정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야광 테이프 장식을 부가한 캐주얼 등산 조끼이다.

두 번째 디자인은 무수대금형 배자류 중 쉼과 무가 없는 허리 하단 옆솔기에 트임이 있는 전복²²⁾으로 전체적인 형태, 깃, 동정의 부드러운 곡선을 참고하였고, 한글이 씌어있는 소재를 믹스하여 우리 전통

	디자인 I	디자인 II	디자인 III
배자			
제품의 도식			
특성	방령깃이 달린 대금형 무수의의 형태를 응용하여 가벼운 운동시 착용될 수 있는 스포티한 아이템	전복의 전체적인 형태, 깃, 동정의 곡선을 응용한 것으로 한글의 소재를 믹스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	반소매 달린 배자를 응용한 것으로 소매부분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능성을 부각시키고, 매듭 단추와 누비로 한국적인 멋을 표현

<그림 3>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제품 설계

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세 번째 디자인에 참가가 된 복식은 방령의로 분류되는 반수대금형 배자²³⁾로 저고리 위에 착용했던 반소매의 사각형의 방령깃이 달려있다. 직선적 형태를 응용하면서 탈부착 가능한 소매로 디자인의 변형을 가능케 했으며 매듭단추와 누비로 한국적인 멋을 표현하였다.(그림 3)

IV. 유니버설 패션디자인 측면에서의 제품 분석

1. 제품 개발

노년기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제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인 지원성, 융통성, 공평성, 심미성, 안전성 측면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발하였다.(그림 4)

첫 번째 제품은 앞여밈 플라켓 부분을 벨크로로 처리함으로써 용이한 착탈에 의한 지원성을 향상시켰다. 소재는 차세대 향상기억소재로 불리는 100%의 폴리에스테르 메모리 섬유로, 자연스런 구김 효과와 원래 형태로 쉽게 회복되는 특성이 있다. 앞판 포켓은 메쉬 소재로 처리하여 포켓 속의 물건을 손쉽게 찾도록 하였으며, 신축성 e-밴드 뒤판 포켓에 삽입함으로써 물건을 넣고 빼기 용이하도록 기능적 편리함을 고려한 지원성을 극대화하였다. 칼라 안쪽으로는 후드를 내장시켜 풍성한 칼라 형태를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 꺼내어 후드달린 조끼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며, 뒷판 포켓에 조끼 전체를 접어 넣어 간편한 크로스 백 형태로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상의 융통성을 증진시켰다. 일반적인 등산용 조끼 형태로 유니버설 측면에서 노년기 여성과 더불어 일반인들의 의복과 구별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공평성이라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의 적용을 하였다. 프린세스라인 절개로 스포티함 속에서도 여성스러운 라인을 살려 착용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미성을 고려하였다. 뒤판 요크의 안쪽으로는 통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쉬 소재를 덧대어 착용시의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야간활동에 안전성 확보를 위

해 식별 효과가 높은 반사광 테이프를 절개선에 파이핑으로 처리하였다.

두 번째 제품은 손가락 끝의 움직임이 둔화된 노인을 위해 지퍼 끝에 끈 장식을 달아 의복 착탈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며 지원성을 향상시켰다. 울 80%, 나일론 20%의 펠트 소재를 사용하였고, 울이 풀리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가장가지를 따로 시접처리하지 않아 깔끔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옆선을 합봉하지 않고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케 하였고,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엉덩이 아래쪽이 베기는 불편함이 없도록 분리형 지퍼로 뒷자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복의 융통성을 고려하였다. 전복의 깃과 동정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려 네크라인을 처리하였고 한국적인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글 배색 소재를 칼라 끝과 포켓의 지퍼가 달리는 부분, 네크라인의 안단 등에 포인트로 사용하여 심미성을 증진시켰다. 이처럼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디자인은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에 의한 심리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보온성이 높은 펠트 소재는 추위로부터의 물리적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노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공평성이 고려되었다.

세 번째 제품에서는 뒷자락의 겉과 안 모두에 스냅을 추가함으로써 착용자의 편의에 따라 앞뒤 여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팔을 일정 각도 이상 들 어올릴 수 없는 경우 뒷여밈으로의 착탈이 가능하게끔 지원성을 향상시켰다. 사용된 소재는 100%의 폴리에스테르의 인조 스웨이드 소재로, 스웨이드 특유의 텍스처와 부드러운 칼라감이 특징적이다. 스냅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소매와 탈착 가능한 칼라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다. 특히 따로 떼어낼 수 있는 소매와 칼라는 부분적인 세탁할 수 있는 편리성과 마모시에 일부만 교체할 수 있는 경제성의 효과도 있다. 일정 간격으로 누비 소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온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적인 요소를 표현하며 앞여밈에 사용된 옷고름 형태의 끈 장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고려한 심미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물론 노년기 여성

제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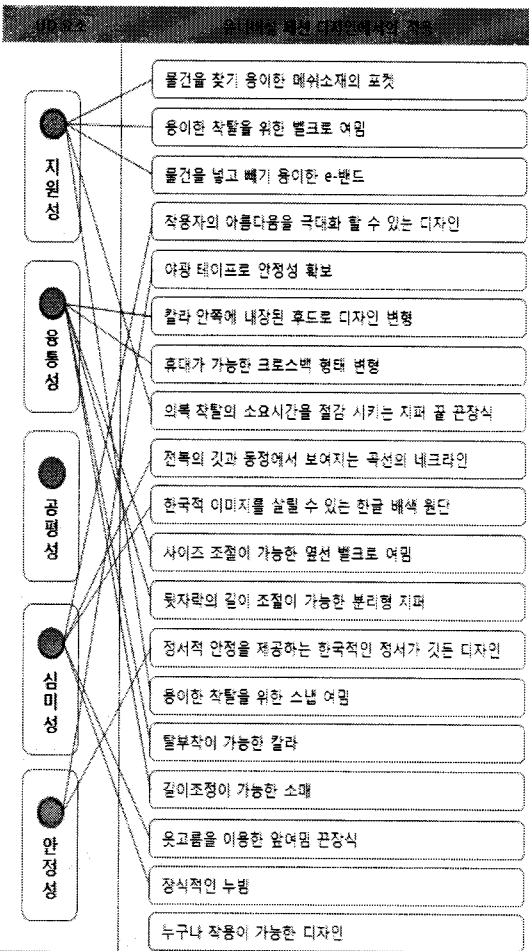
디자인 I	<p>지원성</p> <p>용이한 작탈을 위한 벨크로 여밈</p>		<p>안정성</p> <p>야광 테이프를 안전성 확보</p>
	<p>물건 찾기가 용이한 메쉬 소재의 포켓</p>		<p>용통성</p> <p>칼라 안쪽에 내장된 후드로 디자인 변형</p>
	<p>물건을 넣고 빼기 용이한 e-밴드</p>		<p>후대가 간편한 크로스백으로 형태 변형</p>
디자인 II	<p>지원성</p> <p>의복 작탈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지퍼 끝 끈장식</p>		<p>용통성</p> <p>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염선 벨크로 여밈</p>
	<p>심미성</p> <p>전복의 깃과 동정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네크라인</p>		<p>뒷자락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분리형 지퍼</p>
	<p>한국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글 배색원단</p>		<p>안정성</p> <p>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디자인</p>
디자인 III	<p>용통성</p> <p>탈부착이 가능한 칼라</p>		<p>지원성</p> <p>용이한 작탈을 위한 스냅 여밈</p>
	<p>길이 조절이 가능한 소매</p>		<p>심미성</p> <p>장식적인 누빔</p>
	<p>안정성</p> <p>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디자인</p>		<p>웃고름을 이용한 앞여밈 끈장식</p>

<그림 4> 제품디자인 분석

을 위한 의복으로 차별되지 않는 공평성이 전제로 디자인되었다.

2.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요소별 분석

이상에서 기획, 설계, 개발된 제품을 바탕으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에서 고려된 측면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5〉 노년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개발에 바탕이 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그 결과, 지원성은 물건 찾기가 용이한 메쉬 소재의 포켓, 용이한 착탈을 위한 벨크로 여밈, 물건을 넣고 빼기 용이한 e-밴드, 의복 착탈의 소요시간을

절감 시키는 지퍼 끝의 끈 장식 등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향상시켜 적은 물리적 노력으로 의복행동을 수행을 가능케 함으로 실현되었다. 융통성은 칼라 안쪽에 내장된 후드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과 의복에서 휴대가 가능한 백 형태로 아이템의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소매 등으로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형태변형이 가능케 함으로 표현하였다. 공평성은 일부에게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실현하였다. 심미성은 착용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성표출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성은 아광 테이프를 통한 물리적인 안전과 전통 배자의 형태, 한글 배색의 소재, 옷고름 등의 사용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그림 5〉

V. 결론

오늘날 빠른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노년기 여성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생활과 관련된 노년기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의 개념 및 원리를 재조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전통의 조끼 아이템에 이를 접목시켜 노년기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유니버설과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시킨 유니버설 패션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패션 환경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상품에 기능성을 추가하고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를 전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패션성과 기능성을 균형있게 가미한 제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55세 이상의 '뉴 실버세대'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유니버설 조끼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며 자연을 생각하는 웰빙의 삶과 로하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이 가지는 신체적 제약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

인 측면이 조화된 합리적 제품을 요구한다. 또한 향수적 정서 속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다.

노년기 여성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조끼 제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인 지원성, 융통성, 공평성, 심미성, 안전성 측면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제품을 바탕으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에서 고려된 측면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한국 전통의 조끼인 배자에서 출발된 유니버설 조끼에 있어서 지원성은 포켓, 여밈, e-밴드, 지퍼 끈장식 등으로 의복행동을 위한 물리적 노력을 경감시켰다. 융통성은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과 아이템의 변형으로 표현되었다. 공평성 일부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실현되었으며, 심미성은 착용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안정성은 물리적인 안전과 전통 배자의 형태, 한글 배색의 소재, 옷고름 등의 디테일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노년기 여성을 위한 패션 제품에 한국적 이미지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시킨 것은 노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문제점 해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양질의 삶과 자아 존중감,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가능케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획된 시제품의 제작 및 개발된 시제품의 착의조사를 진행하고 검토된 사항을 수정하여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안인숙 (2003). 노년기 여성을 위한 마담 브랜드의 기성복 스타일 분석과 체형별 캐주얼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감원연 (2005). 여성용 슬랙스 패턴설계를 위한 연구 : 로웨이스트 슬랙스 패턴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 유희숙 (1996). 노인 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I)-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20(6).
- 남궁민지 (2008). 시니어 패션 디자인 분석 및 선호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현 (2006).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패션 디자인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선정 (2006). 노인 및 장애 여성을 위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현신 (2007).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연구. *복식*, 57(9).
- (재인용) 문선정 (2007).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서울: 한국학술정보, p. 43.
- Roberta L. Null, 이연숙 역 (2007).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 태림문화사, p. 94.
- 김혜경 (1999). 신체장애와 특수외복. 서울: 교문사, pp. 73-75.
- 田中直人, 見寺貞子, UNIVERSAL FASHION. 김연희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p. 92.
- 田中直人, 見寺貞子, 김연희 역. 앞의 책, p. 197.
- 문선정. 앞의 책, p. 27.
- 이은경 (2001). 노년여성의 체형분석 및 의류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김경화 (1995). 노년여성 체형의 유형화와 특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최순남 (2000). 현대노인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p. 61.
- 차지영 (2007). 실버세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언더웨어 디자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23.
- 최현민 (2004). Young-Old세대를 위한 COUPE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24.
- 이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187.
- 박두이 (1997). 반비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0-61.
-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7). *漢韓大辭典12권*.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p. 474.
- 이희승 (2006). *국어대사전* (제3 개정판). 서울: 민중書林, pp. 34-37.
- 삼국사기(三國史記). 雜誌 二元色 新羅條.
- 삼실종벽화(三室塚壁畫), 안악3호분(安岳3號墳, 塚主婦人像).
-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배자'에 전복, 쾌자, 호의, 더그레, 배자, 반수의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 교임 또는 대금형의 둥근깃 또는 방령깃이 달린 무수 의(無袖衣)로 정의한다.
- 대금형 방령깃이 달린 반수의(半袖衣)로 정의한다.
- 경기도박물관 (2008). 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 68.
- 경기도박물관 (2008). 2008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p. 64.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2009). 단국대학교 박물관 신축개관관련시도록, p. 62.